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12월 18일(주일) 제1128호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12월 24일 드디어 서서평 선교사를 만난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캠퍼스, 공동체별 영화상영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Not Success but Service!)”

엘리자베스 웨이핑(서서평) 선교사의 침대 밑에 적혀 있던 글귀다. 서서평 선교사는 전라도 일대 나환자들과 결인들을 돌보고, 고아들을 자식 삼아 한 집에서 같이 산 여성 선교사다. 자신의 주검마저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하고 떠난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람들

은 그녀를 작은예수라고 불렀다. 서서평 선교사는 이일학교(한일장신대 전신), 조선간호부회(대한간호협회 전신), 조선여성절제회, 여전도회연합회 등을 창설해서 여성운동과 간호 분야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다. 그녀는 무늬만 선교사가 아니었다. 뺏속까지 선교사 그 자체였다.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진짜 조선인으로 살

았다. 그 숭고한 삶을 재조명하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번 주 토요일(24일) 서서평 선교사의 일대기를 그린 다큐영화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상영된다. CGNTV가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가 드디어 막 오른다. 오전 5시 20분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

회 시간에 상영된다. 캠퍼스별 상영도 실시한다. 서빙고와 양재는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5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공동체별로 영화를 시청한다. 부천, 수원, 양지, 남양주, 대전, 강동, 인천은 오전 10시, 평택은 오후 2시 30분에 상영한다.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영화다. 극장에서도 상영될 예정이다. 영화배우 하정우가 내레이션을 했다.

이 영화를 제작한 홍주연 PD는 “이 영화에는 버림받은 아픔과 고통을 가진 한 인간(서서평)이 예수

를 만나 변화되고, 아픔을 승화시키는 과정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GNTV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선교사, 특히 여성 선교사들을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이 영화를 제작했다. 잊힌 여성 선교사들을 재조명했다는 것 자체가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6면〉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의 한 장면.

다음 주일 “메리 크리스마스”

칸타타, 콘서트 등 캠퍼스별 성탄행사 풍성

다음 주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각 캠퍼스별로 풍성한 성탄축하예배를 드린다.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는 성탄축하예배를 25일 오전 6시 50분, 9시, 11시 30분, 오후 2시에 드린다. 부천은 오전 9시, 11시 30분, 오후 2시, 오후 7시, 남양주와 평택은 오전 9시, 11시 30분, 인천은 오전 9시, 11시 30분, 오후 2시, 양지는 오전 11시에 드린다. 수원, 대전, 강동은 주일예배와 동일하게 드린다.

서빙고, 양재, 부천, 수원, 평택 성탄축하예배에서는 칸타타를, 부천은 오후 7시 차세대 뮤지컬 ‘왕을 따르는 사람들’을, 수원은 오후 7시 전도집회 “빈 방 있습니까?”를, 남양주,

인천은 차세대 발표회로 특별예배를 드린다.

성탄을 맞이하는 행사도 풍성하다. 서빙고는 21일 오후 7시 30분 ‘2016 성탄콘서트’를, 남양주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여성전도집회 ‘Christmas For You’와 24일 오후 7시 온누리미션 성탄예배를, 평택은 24일 오후 5시 온가족 성탄전야 콘서트를 개최한다. 강동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이민국 목사와 함께하는 전도집회와 오후 7시 30분 차세대 성탄축제를, 양지는 24일 차세대 성탄축하공연과 오후 5시 지난 전도집회에서 결신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전도대상자들을 다시 초대한다.



경배와 찬양에서는 2016 한국교회 성탄절 거리행진 및 큰잔치를 벌인다. 12월 25일 오후 4시 시청 앞 광장에 모여 종로를 거쳐 대학로, 방배동, 서빙고동 거리를 행진한다. 오후 7시에는 방주교회 본당에서 ‘한국교회 성탄절 큰잔치’가 열린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2017 선교헌금 작성 행사

1월 1일과 8일, 자동이체 또는 헌금봉투

2017 선교헌금 작성 행사가 1월 1일과 8일에 실시된다. 이날 예배에서 나눠주는 선교헌금 작성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선교헌금 작성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중보기도와 재능기부 후원도 가능하다.

선교헌금 작성은 자동이체(CMS)나 헌금봉투 방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처음 자동이체 방식을 선택한 성도는 선교헌금 작성 신청서 신규 작성란에, 자동이체를 하던 성도는 변경 작성란에 해당부분을 표시해야 한다. 소속캠퍼스, 성명,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및 주민번호의 생년월일도 빠짐없이 기입해야 한다.

작성금액은 금액란에 체크하고,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에도 표시해야 한다. 헌금봉투 방식을 선택한 성도는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작성금액을 적어야 하며, 선교헌금 봉투를 수령할 캠퍼스도 선택해야 한다. 서빙고 1층 로비와 양재 사랑홀 로비 접수데스크에서는 재능기부와 선교봉사자도 모집한다.

문의: 02-3215-3616.

/ 김현준 기자

목상하는 목수를 찾아서 10

탈북민 섬기는 탈북민 박대현 성도

“꼭 좋은 날이 오거든요”



우리온 사이트를 관리 중인 박대현 성도.

목상하는 목수를 만났다. 일터에서도 성공적으로 일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진짜 목상하는 목수 말이다. 과연 그들은 일터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고,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궁금했다. 이번에 만난 목상하는 목수는 탈북민이다. 탈북민을 위한 정보제공 플랫폼 ‘우리온(woorion.net)’을 운영하고 있는 박대현 성도(한터공동체)가 주인공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탈북민이 탈북민을 섬기고 있다. 그것도 26살 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 말이다. 희망, 에너지, 긍정, 소망, 사랑 등 기분 좋은 단어만 떠오를 정도로 선하고 건실한 청년이다. 그에게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험난한 곡절이 많았다. 오로지 성공을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의 조건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떠벌어도 매번 실패했다. 좌절하고 또 했다.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던 중에 예수를 만났다. 그때부터 인생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꽃향기가 났다.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 성공만 쫓던 청년이 섬김에 눈을 떴다. 탈북민이 탈북민을 섬긴다는 기가 막힌 비전을 품었다. 월급 한 푼 받지 않지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탈북과 새로운 시작 그리고 실패와 좌절

그는 황해남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어부였고 어머니는 무역업에 종사했다. 북한에서는 모자라지도 넘치지지도 않는 생활을 했다. 남들과 똑같이 공부하고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던 2007년, 17살에 탈북했다. 사실 탈북을 하는지도 몰랐다. 두만강 앞에 설 때까지 북한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국군 포로였던 할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의 손을 잡고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갔다. 탈북

하면서 실감이 나지 않았다. 작별인사도 하지 못한 아버지 생각에 가슴 아팠다.

“마음의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탈북을 했어요. 혼란스럽고 하고, 흥분도 되고, 걱정도 되더라고요”

2007년 4월 25일 남한 땅을 밟았다. 2개월 동안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고 다시 3개월을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탈북민 교육을 마치고 나서는 난민이 되어 영국으로 갔다. 당시 영국은 한국에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난민으로 살아가는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국가였다.

“영어를 못하면 취업도 못하고, 낙오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어도 배우고 더 큰 세상을 알고 싶어서 9살 여동생 손을 잡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어단어 10개도 모르던 17살 소년이었다. 영국에서의 삶은 힘듦의 연속이었다. 그래도 성공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각오로 버텼다. 처음 가진 직업은 신문배달부였다.

“돈을 벌어야하는 절실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 큰 유럽에 혈육이라고는 동생뿐이었습니 다. 월급을 받아서 동생 신발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영어도 모르고 나이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신문배달 밖에 없더라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다 했다. 신문배달도 하고, 식

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영어도 능숙해지고 영국 생활도 적응이 되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정체성에 혼란이 왔다. 그동안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웃들이 너는 어디에서 왔어?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물으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2년 금세 부자가 될 줄 알고 그동안 번 돈을 몽땅 투자했다. 그런데 사기였다. 그렇게 허무하게 피눈물 흘리며며 모은 돈을 한 순간에 잃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다.

“제 인생에서 가장 고달픈 시기였어요. 저에게 한국은 사막 같았어요. 친구도 없고, 한국 말도 잘 못했거든요. 그래도 잃은 돈을 만회해보겠다고 막노동도 하고 정말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다행히 영국으로 진출하는 중국계 기업에 들어가 다시 영국 생활을 시작했다. 일을 하면서 부동산중개 사이트도 운영했다. 그런데 또 실패했다. 그 다음에는 중국으로 갔다. 선교사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카페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일은 제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고,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실패를 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에서 의류업체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2014년, 중국에서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인생의 패배자, 낙오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이다. 지인의 소개로 한터공동체에 가게 되었다. 당시 교회는 그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장

소였다.

“신앙은 없었지만 영국에서도 교회에 종종 나갔어요. 크리스천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항상 제 주변에는 크리스천들이 있었고, 언제부턴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크리스천들이 이웃을 섬기는지 알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 혼란스럽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더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일에 대한 소명도 달라졌다. 오직 성공을 위해 일하던 그가 누군가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탈북민을 위한 정보제공 플랫폼 ‘우리온’을 설립하게 되었다.

“탈북민 자살률이 일반국민 자살률의 3배가 넘는다는 기사였어요. 탈북민들이 한국에 적응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요. 저도 그 어려움을 겪었고요.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탈북민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의 한국 적응을 돕고, 꿈을 찾아주고 싶었거든요.”

기관과 기업에서 운영하는 탈북민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정말 많다. 문제는 탈북민들이 그 정보를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온’에서는 탈북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40여개가 넘는 기관들과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탈북민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 취업, 주거, 의료, 직업교육 등 탈북민들에게 정말 소중한 꼭 필요한 정보들이다. 탈북민들을 각 분야 멘토들과 연결시켜 주기도 한다. 탈북민들이 한국 생활이나 문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우리온을 통해 제공받고 꿈을 되찾고 있다. 우리온 개발 1년 만에 회원이 5천 명이 넘었고, 매일 700~1,0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우리온을 이용하고 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탈북민들이 이용하는 사이트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일했는데 이제는 남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습니다. 그냥 일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동안 탈북민 721명이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그 인사가 저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세상살이에 지쳐 꿈을 잃고 방황하는 남북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날이 옵니다. 행복이 있어야 그 행복을 나눌 수도 있고요. 아무리 어렵고 슬퍼도 행복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온’에서 웹사이트 디자이너, 분야별 멘토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woorion1004@naver.com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세상의 모든 아기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이 자랍니다. 이 시기는 부모로서의 준비기간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입을 옷을 준비하고,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이름을 짓는 등 생명이 태어나서 살아갈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출생이 예고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르러서는 더 구체적인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인이 예언을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종교지도자일지라도 성장한 이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언된 출생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출생 자체가 역사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님의 출생을 준비하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전 700년 전 다윗왕국이 무너져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출생이 예언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출생이 집중적으로 예언되는 시점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가장 절망의 시대에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참된 희망을 준다는 예언입니다. 예언서는 역사의 절망과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동시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회복과 소망과 구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가장 절망적인 시대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땅에 생명의 빛을

이스라엘의 절망은 강대국이었던 앗시리아의 침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앗시리아의 정복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헬몬산 기슭에서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펼쳐지는 비옥한 농경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주요 무역 통로이기도 합니다. 왜 이곳이 1차적인 정복

지역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풍부하고, 영광스러웠던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이 앗시리아에 의해서 짓밟힘으로써 이스라엘은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회복과 희망, 구원을 예언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 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1-2절).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이 사라지고, 모욕을 당하던 땅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큰 빛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사람들에게 빛이 비춥니다. 모욕을 당한 갈릴리 땅을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잠시 이방 땅을 여행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모든 공생애를 보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갈릴리는 모욕을 당한 땅이었습니다. 수치스런 땅이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있었던 땅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했습니까. 수천 명이 굶주려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버려진 땅, 외면당한 땅, 오욕스러운 땅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에게만 빛이 되셨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표현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온 세상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둠 속을 걷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을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왜 억눌려 있습니까. 죽음의 그림자에 억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고통스러워합니까. 죽음의 그림자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에 덮여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혼란이 왜 찾아옵니까. 어둠 속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

도자들이 눈이 멀어서 어둠 속을 걸을 때 온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통과 어둠이 드리워진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성탄의 축복은 어둠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모욕의 땅을 영광스럽게 바꾸신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생명으로 임한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 오심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장차 오실 메시아 오심의 기쁨을 예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려운 역사는 전 세계에서 되풀이되는 비극입니다. 어둠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가 덮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한 아이가 태어났다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3절).

추수할 때의 기쁨,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이 바로 메시아가 임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운동경기에서 승리했을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생과 사를 가르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6절).

6절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6절을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기쁨이 올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한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기쁨을 주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됩니다. 그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 이름이 다양하게 불리우는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우리를 위해 태어나는 아이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태어나는 아이입니다. 대개 한 아이의 출생은 그 가정의 기쁨입니다. 전혀 모르는 옆집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잠 못 이루고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이 기쁠 수 있지만 전혀 모르는 집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잠

이 안 올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아이가 우는 소리도 생명의 소리입니다.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우리 모두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출생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과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표현하기 위하여 과거형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완료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예언적 과거라고 설명합니다. 앞으로 이뤄질 일을 이미 이뤄진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갓난아이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특히 사람의 아이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실 때 가장 연약한 존재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실 때 성장한 모습으로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처럼 성인으로 보내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이로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잉태되어야 그분이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에게 붙여진 이름이 네 가지가 됩니다. 성경에 메시아를 예언할 때 쓰는 이름이 286개나 됩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에서 임마누엘이라고 불렸고, 9장에서는 네 개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한 하나님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 모사’입니다. 두개의 단어를 분리해서 두개의 단어로 보기도 하는데 한단어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단어는 ‘경이로움, 놀라운 기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단어는 ‘지혜를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합하면 ‘경이로운 놀라운 지혜를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놀랍고 신비한 지혜를 가진 상담자입니다. 놀라우신 조연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한 아이로 태어나셨지만 놀랍고 경이로운 지혜를 가진 조연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3편에 계속〉

We're
The
Onnuri

기획_국내 10개 캠퍼스순방
8 평택 온누리교회

본지에서는 예수바보행전을 써내려가고 있는 국내 10개 캠퍼스를 순방하고 있다. 어떤 성도들이 어떤 모양으로 신앙 생활 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교계에는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여덟 번째 주인공은 2005년 창립한 평택 온누리교회다. 현재 성도 5백 명이 예배드리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작지만 강하고, 알차고, 성장하는 ‘평택 온누리’

서로 사랑하고, 끈끈한 정으로 하나 된 바로 그 공동체
시민 150만 시대 앞뒤 … 더 많은 이웃에게 복음 전할 기회



아곱의 집 봉사.



여성예배 리트릿.



함양 이웃리치.

평택 온누리교회는 작지만 힘 있는 교회다. 가족 같은 공동체를 꿈꾸며 한걸음씩 성장하고 있다. 경기도 남부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주민 전도에 힘쓰고 있다.

평택 온누리교회는 2005년 12월 25일 창립했다. 태동은 평택순이 처음 생긴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택순 성도들이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드리다 양재 캠퍼스가 세워지면서 예배처소를 옮겼다. 이후 수원 캠퍼스가 창립되면서 또 다시 이동했다. 그러던 2003년 우연찮은 기회에 경기도 평택에 70평 짜리 공간이 생겼다. 그 공간을 기도처소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평택 온누리교회의 시작이다. 당시 수원 온누리교회 교역자들이 오가며 설교했고, 리더십들이 돌아가며 새벽예배를 섬겼다. 당시 함께 모인 성도들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했는지 모른다. 중보기도 열기 또한 뜨거웠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다. 그렇게 2년 동안 기도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다 2005년 12월 25일 정식 캠퍼스로 발돋움 했다.

어머니 품 같은 교회

지난 11년 동안 평택 온누리교회는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주민들을 전도하는데 열과 성을 다했다. 평택 온누리교회가 이주민사역에 일찍부터 앞장선 이유는 교회 인근에 15개가 넘는 공단이 있기 때문이다. 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이주민들의 유입이 계속 증가했다. 이러한 이유로 평택 온누리교회는 창립하자마자 이주민 예배공동체를 세우는데 역량을 집중했다. 교회창립 1년 만에 인도네시아 헬터를 섬기기 시작했고, 인도네시아어 예배를 드렸다. 그 이후에는 몽골예배가 시작되었다. 교회창립부터 지금까지 이주민들을 섬기고, 전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후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그 덕분에 이주민들에게 평택 온누리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라는 소문이 자자하다.

앞으로 전도하고 섬길 이주민들과 이웃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용산에 있는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주하고, 고덕신도시에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평택 인구가 15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평택항을 이용한 중국과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평택에 차이나타운도 들어설 예정이다. 미군 이주부터 공단 이주민 근로자 증가, 중국인 유입까지 더해져 평택 온누리교

회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저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 온누리교회의 150만 시민들을 품고, 섬기고, 전도하겠다는 비전도 더욱 커지고 구체화되고 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공동체

평택 온누리교회의 대표적인 자랑거리는 성도들 간의 끈끈한 정이다. 성도들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는지를 물으면 “순장님 가정의 순가락 솥자도 알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매주 주일 성도들끼리 둘러 앉아 나눠 먹는 점심식사가 얼마나 맛있인지 모른다고 자랑하는 성도들도 많다. 김밥 한 줄에 컵라면뿐 아니라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어떤 성도는 주일날 성도들과 나눠 먹는 점심식사가 즐거워서 일주일을 기다린다고 할 정도다.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가족처럼 끈끈하게 뭉치게 된 데에는 리더십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다. 리더십들부터 깊이 교제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담당목사와 성도들도 무척 자주 만난다. 매일 새벽기도회 이후에 담당목사와 성도가 만나서 고민을 나누고,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시간이 보석보다 귀하다. 평택 온누리교회 김종민 담당목사는 언제든지 성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사무실 문을 열어 놓는다. 이와 같은 리더십들의 노력과 숭선수범 덕분에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담당목사를 비롯한 리더십들을 부모처럼 생각하고 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매우 좋다. 지난달에는 담당목사를 중심으로 평택 온누리교회 남자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단합대회를 했다. 짧은 여행을 다녀오면서 삶을 나누고, 사역을 이야기 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다. 서로의 형편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중보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었다. 지체들의 기도제목을 놓고 무릎 꿇는 성도들을 교회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여성 성도들은 수요일여성예배를 중심으로 모이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연합하고 있다.

마음껏 뛰고, 넘어지고, 뒹굴어도 된다

평택 온누리교회에서는 매주 주일이면 재미있는 풍경이 펼쳐진다. 앞치마를 맨 차세대

들이 교회 곳곳을 청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평택 차세대들이 러빙핸즈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러빙핸즈는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사역이다. 매주 주일 차세대들이 스스로 본당부터 교회 입구까지 쓸고 닦느라 여념이 없다. 어른들의 섬김을 받기만 해도 될 텐데 차세대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청소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차세대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섬길 정도면 평택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육이 얼마나 빼어나랴. 그 비법이 궁금했다. 평택 차세대 담당 교역자들과 코치에게 평택 온누리교회만의 차세대 양육 비법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아이들이 교회를 재미있고 즐거운 곳으로 생각하게 하면 되요”

차세대뿐만 아니라 교역자, 선생님, 코치도 교회에서 함께 논다. 모든 세대가 하나 되는 것이다. 세대 간의 벽이 없고 모두 잘 어우러진다. 평택 온누리교회에서는 차세대들이 마음껏 뛰고, 넘어지고, 뒹굴어도 된다. 차세대들에게는 교회보다 더 좋은 놀이터가 있을 수 없다. 교사와 교역자들이 함께 놀아주기 때문에 이보다 좋은 친구와 놀이터가 없다.

또 하나의 비법이 있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평택 차세대는 말씀암송을 강조하고 있다.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기 위하여 부모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암송하면서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다.

섬김도 빼놓을 수 없는 비법이다. 평택 차세대 교사들이 차세대들을 얼마나 극진히 섬기는지 모른다. 하루 종일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이 쉽지 않은데도 한번 쯤그리지도 않는다. 평택 차세대 교사들의 표정에는 늘 천국이 임재해 있다.

김태영 코치는 9년째 평택 예수님의꿈아이를 섬기고 있다. 차세대가 좋아서 교회에 오자마자 섬겼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차세대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작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졌다. 꿈이자라는꿈 김성훈 코치도 아이들이 마냥 좋아서 6년째 섬기고 있다. 그에게는 남다른 비전이 하나 있다. 차세대들이 무조건적인 섬김만 받으면 남을 섬기는데 인색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눔도 강조하는 교육실천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예배준비와 공과시간 준비 등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거나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평택 온누리교회는 차세대를 위한 교육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차세대들이 마음껏 뛰놀고 친구들을 사귄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행복



해진다.

건강하고 건전한 바로 그 교회

성인양육에도 집중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QT와 일대일 제자양육이 있다. 리더십들 먼저 날마다 QT하고, 일대일 제자양육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을 부지런히 양육하고 있다. 리더십들이 술선수범하는 모습이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QT와 일대일 제자양육을 충실하게 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하고 성숙한지 모른다. 꼭 필요한 양육 프로그램은 다른 캠퍼스에서 사람을 초빙해서라도 운영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양육 프로그램이 'Why mission?'이다. 평택에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를 배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최근에는 평택1기 순장학교를 성황리에 마쳤다. 평택1기 순장학교를 수료한 한형창 성도는 순장학교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 순장학교에서 배운 것을 순과 가정에서 적용하면서 삶이 변화되고 있다고 고백했다.

박지수 장로는 양육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고,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JDS, 일.하.세. 아카데미 같은 양육 프로그램을 꼭 개설하고 싶다고 했다. 말씀과 양육에 집중하면서 성장한 평택 온누리교회가 건강하고 건전한 수밖에 없다.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깊은 교제와 사랑 나눔은 교회의 담을 뛰어 넘은지 오래다. 지역 사회와 교회가 하나 되어 이웃들을 내 가족처럼 섬기고 있다. 매주 주일 평택 온누리교회에 오는 장병들을 만날 수 있다. 교회가 없는 부대에 근무하는 장병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섬겨주는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들 덕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세례도 받은 장병이 3명이나 된다. 성도 한 명이 시작한 사역인데 지금은 교회 전체가 돕고 있다. 미용사역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용사역팀이 인도네시아, 몽골에서 온 이주민들의 이발을 해주고 있고, 성매매 여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

창립 때부터 품었던 바로 그 꿈

평택 온누리교회 창립 당시부터 품었던 비전 중 하나가 '이주민을 섬기는 것'이다. 2006년 12월 3일부터 인도네시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2008년에는 이주민들을 위한 전도집회 '고향'을 개최했다. 2009년에는 몽골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선교와 이주민 사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매주 목요일 'How Mission'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선교사들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주일(11일)은 평택 온누리교회 인도네시아 예배가 시작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잔치집이 따로 없었다. 차세대 파워키즈가 워십댄스 특수를 했고, 성도들이 인도네시아 예배 10주년을 축하했다. 이주민 성도들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이날 예배에 오지 못하는 이주민 성도들을 위하여 예배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실시간으로 송출하기도 했다. 아무도 그들이 무슬림이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할 것

이다.

평택 온누리교회 몽골예배에는 30~40여 명의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다. 몽골예배가 맺고 있는 열매도 풍성하다. 몽골에서 온 이주민들은 대체로 샤머니즘과 불교를 믿고 있다. 도야자매도 샤머니즘을 믿는 무당이였다. 그녀는 2010년 한국에 왔고, 2013년 고향 친구들을 만나러 평택 몽골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다. 무당일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평안을 교회에 나오면서 경험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지금 그녀는 몽골인을 위한 신학교에 다니고 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 박사과정까지 공부하고 싶다는 포부를 갖게 되었다. 공부를 마치면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을 전도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겠다는 꿈도 꾸고 있다.

평택 온누리교회의 이주민 섬김은 지경을 계속 넓혀 나가고 있다. 중국어예배와 영어예배도 설립할 예정이다. 목표는 하나다. 더 많은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김종민 담임목사

평택 온누리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난 1년은 저에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양육, 공동체, 사역을 감당하는데 성도님들이 정말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평택 온누리교회가 타 캠퍼스 보다 인원은 적을지 몰라도 다른 면에서는 전혀 작지 않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사역이 워낙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평택 온누리교회 역시 해야 할 사역이 많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버거운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올 수 있었습니다. 모두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협력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정말 좋은 말씀과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켜봐야 합니다. 저 역시 두렵고, 아쉽고, 도전이 됩니다.

2017년은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모임에 나가도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아무런 힘이 없고, 그 사역과 모임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QT를 하십시오. 더 많은 남자 성도님들이 QT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성 리더십들이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고, 교회와 세상에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평택 온누리교회가 창립 12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배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숫자적인 부흥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평택 온누리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세대를 위한 공간, 이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될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래서 평택 온누리교회가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2005년, 성도 24명으로 시작한 평택 온누리교회가 지금까지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 김명종 장로

정말 가족 같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이 없고, 한 가정 한 가정 모두 친합니다. 그래서 새신자도 교회에 금방 적응합니다. / 문준호 성도

새신자들을 놓치지 않는 새가족사역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섬기는 평택 새가족사역팀이 최고입니다. / 김종숙 권사

예배 끝나고 먹을 수 있는 다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다과는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문계현 성도

날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11주년이 넘었는데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 윤지연 성도

시골의 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때 집에서 키운 고추, 상추를 가지고 와서 나누어 먹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으면 집에서 음식을 싸오는 정성이 있습니다. / 임복자 권사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진짜 조선인

‘서서평 선교사’ 그녀의 이름을 다시 꺼내 불러본다



▲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에서 서서평 역을 연기한 배우 안나.
◀ 광주 제중원에서 서서평 선교사와 조선 부인.

약 100여 년 전, 가난하고 억압받던 조선 땅에 작은예수가 있었다. 나환자와 걸인, 무지하고 힘없는 여성들의 구세주였다. 그녀가 바로 ‘서서평’ 선교사다. 이번 주 토요일, 서서평 선교사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 영화가 상영된다.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마포삼열, 유진벨, 힐버트 등 남성 선교사 중심의 한국 선교 역사에서 여성 선교사들이 평가절하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고아와 과부, 나환자와 거지들을 보살핀 이들은 대부분 여성 선교사들이었다. 서서평 선교사도 여성 선교사다. 전라도 일대에서 나환자들과 걸인, 고아들을 돌보고 거뒀다. 고아 14명을 자녀 삼고, 소박맞거나 오갈 데 없는 과부 38명과 한 집에서 살았다. 이일학교(한일장신대학교 전신), 조선간호부회(대한간호협회 전신), 조선여성절제회, 여전도회연합회 등을 창설해서 여성운동과 간호 분야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최흥종 목사와 함께 우가키 총독을 찾아가 담판을 벌여 나환자 정관수술 정책을 폐기하게 하고, 소록도에 갱생원 설립도 약속 받았다.

달라도 너무 다른 그녀

“백만장자의 위치에 지지 않을 집에 편히 앉아서 남녀 하인을 두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어떤 선교사들의 귀에 양(서서평)의 일생은 어떠한 음성을 가지고 울리울까?”

서서평 선교사 별세 당시 동아일보에 실렸던 사설의 일부분이다. 당시 조선으로 건너온 수많은 미국인 선교사들이 병원, 학교, 고아원을 세우고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대부분 미국식 삶을 고수했다.

언더우드(새문안교회, 연세대 전신 설립자) 선교사는 남대문 인근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가운데 3층 건물을 짓고 살았고, 동대문 부근에 별장도 있었다. 유진벨(광주 수피아여고, 제중병원 설립자) 선교사는 승마를 하려고 말 네 필을 가지고 있었다. 윌슨(광주기독병원 2

대 원장, 의사) 선교사는 사냥을 즐겼다. 한꺼번에 사슴 24마리를 잡았다는 기록도 있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지리산 아래서 조선인들에게 등짐을 시켜 남시루봉 정상 부근에 별장을 짓고, 그곳에서 포크댄스를 추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녀는 달랐다. 당시 무척 가난했던 조선에 살면서 보리밥에 된장국을 주식으로 먹었다. 육양목 저고리에 검정 통치마,

이 많이 잊힌 게 사실이다. CGNTV는 이 같은 점에 착안해서 세상에서 소외받고, 버림받은 이들과 함께 한 여성 선교사들을 재조명했다.

제작과정에서부터 은혜가 차고 넘쳤다. 영화 제작을 위하여 서서평 선교사에 대한 자료를 찾고 조사하다 보니 놀라운 사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도 있다.

화순택 : 자네들 들었는가? 호랑가시나무 언덕에 사는 여 선교사가 말하여, 글썽 고아들을 열 네 명이나 입양해서 키우고 있단디?

남평택 : 웬매! 열 네 명이나? 뭇일이당가. 제중원서 일하는 미국 간호사가 고아들을 데려다 키운단 소리는 들었는데, 고라고 많이 키운 줄은 몰랐구만!

화순택 : 근당게. 그 처잔 평생 우리 광주 사람들을 위해서 살 것다고 마음을 먹어브렀대. 거 머시여, 예수인가 머시건가 하는 양반한티 약조 해부렀단디.

남평택 : 아파 참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양림리에 보내준 천사였구만 천사!

남자 검정고무신을 신고 생활했다. 그녀는 궁핍한 조선의 친구가 아니라 그녀 스스로 궁핍한 진짜 조선인으로 살았다. 진정한 작은예수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 주었다.

작은예수 서서평의 상처 그리고 회복

서서평 선교사를 재조명한 다큐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는 CGNTV가 제작했다. 극장 상영도 앞두고 있다. 한국 교회와 크리스천은 물론 넌크리스천들에게도 목격한 메시지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CGNTV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선교사, 특히 여성 선교사들을 발굴하자는 취지로 이 영화를 제작했다. 여성 선교사들을 재조명한다는 것 자체가 획기적이었다. 한국 선교 역사에는 남성 선교사들의 업적이 잘 알려져 있다. 상대적으로 음지에서 헌신한 여성 선교사들

평온하게(平)라는 의미다. 그렇게 살고 싶어서 스스로 지은 이름이다.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누군가의 사랑을 갈망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비워진 그녀의 마음을 예수님이 가득 채워 주셨다. 예수님을 만나고 고통과 슬픔이 기쁨과 환희로 바뀌었다.

그녀는 조선에 오기 전부터 매우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살며 더디지만 천천히, 높아진 것들을 평평하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해냈다. 그런 그녀를 사람들은 ‘작은예수’라 불렀다.

서서평을 연기할 안나를 만나다

주연배우를 캐스팅하는 과정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주요 배역이 외국인이라 걸맞은 배우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았다. 관건은 주인공 서서평을 누가 하느냐는 것이었다. 독일어와 영어가 가능하고, 역양까지 좋은 배우가 필요했다. 그 조건을 모두 갖춘 크리스천 배우를 찾기 위해서 외국어 예배, 매니지먼트를 다 뒤졌다. 그렇게 ‘안나’라는 배우를 만났다. 교회 관계자가 추천해줬는데 만나자마자 깜짝 놀랐다. 크리스천이고, 독일인에다 영어도 잘했다. 거기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하고 있는 연기자였다. 안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한 번 놀랐다. 그녀의 간증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한국에서 연기를 전공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기껏해야 외국인 며느리 정도 밖에 못할 것이라는 말도 들었고요. 너무 속상해서 독일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나, 한국에는 외국인 선교사가 많이 들어가서 좋은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다. 외국인 선교사의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된다면 네가 그 역할을 맡을 수도 있을 거야.”

그 말이 현실이 됐다. 어쩔 이렇게 기가 막힐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안나의 신앙도 얼마나 단단하던지 제작진들은 마치 서서평 선교사가 살아 돌아온 느낌이라고 고백했다.

이 영화는 극장에서 볼 수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서평 선교사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다. 그만큼 깊은 울림과 도전이 될 것이다. 극장에 상영될 때도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서서평이란 이름은 ‘천천히(徐) 느리게(舒)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CGNTV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캠퍼스별 상영 안내

서빙고	12월 24일(토) 오전 5시 20분,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5시 / 서빙고 분당
양재	12월 24일(토) 오전 5시 20분(사랑홀),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5시 / 서빙고 분당
부천	12월 24일(토) 오전 5시 20분, 오전 10시 / 분당
수원	12월 24일(토) 오전 5시 20분, 오전 10시 / 분당
대전	12월 24일(토) 오전 5시 20분, 오전 10시 / 분당
남양주	12월 24일(토) 오전 5시 20분, 오전 10시 / 분당
평택	12월 25일(일) 오전 5시 20분, 오후 2시 30분 / 분당
인천	12월 24일(토) 오전 5시 20분, 오전 10시 / 프레스페이스 6층
강동	12월 24일(토) 오전 6시(본당), 오전 10시 30분 / 두란노홀
양지	12월 24일(토) 오전 5시 20분, 오전 10시 / 분당

2017 선교헌금 여기에 사용됩니다

1. 찾아오는 선교지 '이주민 선교'
2. 선교사 케어

찾아오는 선교지 '이주민 선교'



네팔인을 위한 맞춤형도집회에서 이촌공동체 지체들이 특순을 하고 있다.

이주민들을 '찾아오는 선교지'라고 부른다. 이주민들을 전도하고, 섬기는 것이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한국의 또 하나의 선교방법이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는 온누리M미션을 중심으로 이주민들을 전도하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고 있다. 그렇게 성장한 이주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선교사로 살아간다. 가족, 친구, 지인 등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를 소개하고, 교회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역파송 선교사'라고 한다. 누군가의 가족이자 친구, 중요한 지인이 전해주는 복음의 전파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2017년에는 이주민 선교에 더 집중할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김영선 기자

온누리M미션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역팀도 이주민 선교에 발 벗고 나섰다. 고국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타향에서 외롭게 지내는 이주민들을 섬기는 데 너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온누리M미션, 전도본부, 이촌공동체, 영등포구로공동체는 힘을 합쳐 아주 특별한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일 안산M센터에서 개최된 네팔인을 위한 맞춤형도집회 'Sanga sangai(함께라는 뜻)'가 바로 그것이다.

연말연시 나만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주민들에게 이보다 좋은 선물도 없었다.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도 만났다. 얼마나 좋았으면 전도집회에 참석한 네팔인 152명 중에 55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58명이 교회와 성경을 더 알고 싶다고 했다.

주고 싶은 마음과 받고 싶은 마음

집회 당일, 안산M센터 입구에서부터 훈훈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커다란 트리과 모빌이 집회장을 찾은 네팔인들을 환영하고 있었다. 집회가 시작되려면 아직 한참인데 일찌감치 온 성도들이 꽤 보였다. 친구들을 초청한 네팔인들이 먼저 와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다. 사연은 달랐지만 소망하는 마음은 같았다.

"타향살이에 지쳐있는 친구에게 꼭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주민들은 연말이 되면 더 외롭고 더 서글프다고 한다. 눈만 감아도 고향생각이 나고, 가족들과 함께 먹던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눈에 선하다고 한다. 네팔에서 온 빔 형제는 "연말이면 더 외롭고 더 힘들어서 눈물이 난다"고 했고, 가야나 형제는 "가족들 생각을 하면 힘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가족들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데 코끝이 찡했다. 안산M센터에서 네팔예배를 섬기고 있는 김만순 장로도 "늘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우는 이주민들을 보면 무척 안타깝다"고 했다.

외롭고 힘든 그들에게 세상에는 없는 친구들이 찾아왔다. 온누리교회 전도본부, 이촌공동체, 영등포구로공동체, 몽골예배 성도들이 그 주인공들이다.

이주민들을 섬기기로 마음먹기까지는 너무 쉬웠는데 막상 현장에 왔더니 걱정이 되었다. 언어가 문제였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이주민들에게 행여나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기우에 불과했다.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과 위로 받고자 하는 마음은 통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이주민들도 이촌 공동체 성도들의 SUM잔량과 영등

포구로공동체 성도들이 연주하는 네팔 전통가요 '레삼피리리'를 듣고 마음을 활짝 열었다. 전도본부의 탁월한 기획력과 행사진행도 그들이 마음을 여는데 한몫했다. 몽골예배 지체들은 같은 이주민으로서 그들의 애환과 고통을 공감해 줬다. 기사노르바 형제는 "정말 고향에 온 것 같다"면서 덩실덩실 춤을 쳤고, 이날 안산M센터에 처음 온 이주민들은 "한국에서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은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고백했다. 위로해주고 응원해준 한국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다.

든든한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이날 전도집회의 백미는 고국에 있는 가족들의 영상편지였다. 이주민들이 영상으로 부모, 아내, 자녀들을 만나고 얼마나 반갑고 그리웠으면 눈물을 펄펄 흘렸다. 잠깐 못 본 사이에 어머니 눈가에 주름이 늘었고, 누워만 있던 딸이 언제 컸는지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있었다. 매일 만나고 싶어도 그들이 네팔에 한 번 다녀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참고 또 참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주민들에게 영상편지는 그 무엇보다 귀하고 값진 선물이었다.

네팔에서 온 이주민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을 망설이는 이유가 있다. 가족들 때문이다. 가족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종을 하는 동시에 연을 끊을 각오를 해야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빔 형제도 가족들의 반대로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지만 가족들의 기대를 도저히 저버릴 수 없어서 기도하고 있다. 기사노르바 형제도 마찬가지였다. 가족들 때문에 세례받는 것을 망설였는데 하나님이 그의 꿈에 3번이나 찾아와 용기를 줬다. 그 힘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가족들의 반대가 완강했다. 큰 위기에 놓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는 네팔인들을 위하여 이번 전도집회에서는 그들과 처지가 비슷한 목사를 초청했다. 필립수메디 목사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카스트제도의 최상위 계급인 브라만이자 힌두교 제사장으로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그가 기독교로 개종할 당시 가족들의 반대가 얼마나 거셌는지 모른다. 네팔인을 위한 맞춤형도집회에서 설교한 필립수메디 목사는 자신의 삶을 간증했다. 그는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만 있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입술로 선포하고 세례를 받으면 분명 하나님이 함께하실 거라고 용기를 북돋아 줬다. 초청자들과 스태프들은 중보기도로 그들을 도왔다. 이제 그들은 타향에 살아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 누구보다 든든한 하나님이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다.

안산M센터는 이주민 200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더 활발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주민을 위한 맞춤형도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4일에는 몽골인을 위한 맞춤형도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선교헌금으로, 중보기도로 이주민 사역에 동참하자. 안방에서 선교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도 개최

어디 맞춤형도집회 뿐일까. 이주민을 섬기는 사역이 말이다.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사역도 있다. 지난 11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B101호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다. 온누리M미션 소속 한글학교 학생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시리아, 네팔에서 온 이주민들과 그 자녀들이 총출동했다. 간증, 찬양, 성구암송, 장기자랑 등 풍성한 천국잔치가 벌어졌다. 초급반 올라(카자흐스탄) 학생은 "한국말 잘 못해요. 한국 음악이 너무 좋아요"라고 말했고, 중급반 전드라(네팔) 학생은 "온누리교회에서 한국말 열심히 배우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간증했다. 이날 한국어말하기 대회에서는 박나타샤(한국)가 고급반 1위, 알료냐(카자흐스탄)가 중급반 1위, 스페타(카자흐스탄)가 초급반 1위를 차지했다.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교장 이영복 장로)는 매주 주일 오후 1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101호에서 진행되고 있다.

고급반 1등 수상자 발표

힘들어도 더 열심히

저는 키르기즈스탄에서 온 박나타샤라고 합니다. 8년 전에 키르기즈스탄에서 한국 사람과 결혼했고, 4년 전에 남편과 함께 한국에 왔어요. 2년 전에는 예쁜 아기 범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지금 열심히 한국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기가 한국말을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기 돌보느라 시간이 많이 없지만 한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계속 한국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글학교에 오면 친구들과 선생님에게서도 매우 즐겁습니다. 한국말과 한국 문화에 대해 질문하면 잘 알려주셔서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만나는 다른 아기 엄마들과 친해지고 싶는데 말이 서툴러서 쉽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어 실력을 키울 것입니다.

/ 박나타샤 성도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돌이키면 살어나리라

설교_ 이재훈 담임목사



Mon 월요일

들으라 귀 기울이라 (이사야 1:10~18)

“하늘아, 들으라 땅아 귀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자식들이라고 기르고 키웠으나 그들이 나를 거역했구나. 황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사 1:2~3).

왜 하늘과 땅을 보고 들으라고 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것입니다. 하늘도, 땅도, 모든 생물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황소도 먹

이를 주는 주인을 알아보고 인정할 줄 아는데 사람들은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은 반역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통탄하실 일입니다. 가장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만은 회개를 통해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가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한 곳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거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체휼해야 합니다. 또 죄를 위선으로 감추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른다고 포장하지만 마음과 삶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위선입니다.

“그 많은 너희 제물을 무엇 하려고 내게로 가져오느냐?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도 지겹다. 나는 황소와 어린양과 염소의 피도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내 얼굴을 보려고 나올 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느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사 1:11~12).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죄를 포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마

음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손을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라. 악한 일을 그만두고 좋은 일 하기를 배우라!”(사 1:16~17).

공의로운 삶, 정직한 삶,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삶은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변명하지 말고, 위선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Tue 화요일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이사야 40:25~31)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니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관여할 존재가 없으니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극적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존재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반드시 무엇인가를 믿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국가, 법 등 무엇이든 믿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

님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극적 무신론’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한 사람의 무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을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새 힘을 얻는 시기는 폭풍과 시련이 다가올 때입니다. 다른 새

는 둥지에 숨거나 나오지 않지만 독수리는 폭풍을 환영하듯이 거센 바람을 타고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 속에 있지만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독수리와 까마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독수리가 하늘을 날다 땅에 있는 양 한 마리를 낚아챘습니다. 이를 본 까마귀가 자신도 똑같이 해보겠다고 양에게 덤벼했습니다. 그러나 까마귀의 발톱이 양의 털에 엉켜 날갯짓을 해도 날아오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본 양치기가 까마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흉내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수리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폭풍이 몰려오

면 날갯짓을 해서 하늘로 비상해야 합니다.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비상할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여호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독수리처럼 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선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러느냐?”고 비꼬고 의심하는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앙망할 때 우리의 삶과 민족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Wed 수요일

두 가지 악 (예레미야 2:13, 17:1~11)

진정한 영적생활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지나칠 정도로 자기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를 보면 자신에 대한 확신을 더 심어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외면,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가르침이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사역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를 통해 거룩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였다”(렘 2:13).

첫 번째 악은 생명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은 스스로 물 저장소를 만든 것입니다. 그 저장소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깨진 저장소였습니다. 마당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덮어버리고 일 년에 두 번 있는 우기의 빗물을 받는 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행동입니까. 죄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그의 힘으로 삼는, 그래서 그 마

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서 좋은 일이 생겨도 보지 못하고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소금 땅에서 살 것이다”(렘 17:5~6).

사막의 덤불은 저주받은 인생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나무입니다. 우리가 생명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날 때 생기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생기는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원천과 연결되어야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환경변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추운 겨울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명

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환경을 거스를 수 있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둘째,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의 진정한 가치는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은 영향을 주지 않으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열매를 맺을 때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는 비결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생명력 있는 영적생활을 하십시오.

Thu 목요일

은혜로운 약속 (예레미야 29:10~14)

시간이 죄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죄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견고해지고, 습관화됩니다.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병을 수술로 고쳐야 하듯이 죄도 수술을 통해 치료하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까닭입니다.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렘 29:10~11).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깊은 불신과 두려움에 빠져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불신이 하나의 패턴이 되어서 잘못된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업보입니다. 카르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르마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에서 잘못을 행하면 다음 생에서 분명히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뛰어넘어 회복하는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은혜는 카르마를 끊는 것입니다. 카르마를 끊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는 은혜를 주시는 선물이라

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약속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포로상태에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내 자신을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 들어갈 때 스스로를 알게 됩니다. 인간의 성격과 심리 연구 모델 중에 ‘조하리의 창’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석입니다. 첫 번째 창문은 공개적 영역입니다.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 창문은 숨겨진 영역입니다.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세 번째 창문은 맹목의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창문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회개는 셋째, 넷째 영역입니다. 이 영역까지 들어가야 우리가 진정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수술을 통해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찾지 않으면 강제라도 찾게 하십니다. 고통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우리도 은혜로운 약속이 주어졌을 때 회개하며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심판을 넘어선 하나님의 회복, 재앙을 넘어선 하나님의 평안, 징벌을 넘어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살아납니다. 어떤 죄와 허물로 심판과 징계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주십니다.



Fri 금요일

새 언약의 축복 (에스겔 36:22~28)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두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목적은 동일하나 그 과정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단계별 목적이 있습니다. 옛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기준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듯이 옛 언약에서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실패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실패입니다. 옛 언약에서 인간이 실패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벨론 포로가 된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바로 그 실패의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레미야와 에스겔 모두 동일

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새 언약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사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너희가’라는 관점을 강조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심판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마음’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너희의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고 살

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옛 언약 아래에서 왜 실패했을까요. 인간은 외형적인 활동과 형식, 제도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은 돌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식해주심으로써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이 어떻게 가능할까. 새로운 영을 주심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약속, 즉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씻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축복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임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 아래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새 언약 아래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셨

지만 이제는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동기도 다릅니다.

옛 언약에서는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섬겼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힘도 다릅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는 자연적인 힘을 의지했다면 새 언약 아래에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능력을 얻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새 언약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주어진 약속의 시점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승리했을 때가 아니라 절망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은혜의 약속으로 찾아오십니다. 지금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모두 과정입니다. 우리가 옛 언약 안에서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바라보십시오. 새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와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돌이키기와 살아나기



〈특강 예레미야〉
김근주 저 | IVP | 14,000원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해였다’는 표현을 참 많이 한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매해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올해처럼 이 말이 피부 속까지 와 닿은 적도 없었던 것 같다. 온 국민을 당황하게 만들고,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사건도 있었고, 개개인의 삶도 더 힘들어져 가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을 마감하고 2017년을 시작하면서 ‘돌이키면 살아나리라’를 주제

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다. ‘돌이키면 살아나리라’는 말은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살아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돌이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 우리의 돌이킴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살아나게 된다. 예레미야

(?)소리만 하는 예레미야를 진바벨론주의자로 여겨 죽이려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끝까지 신앙적 사명을 감당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당시 이스라엘과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돌이키라는 것이다.

〈특강 예레미야〉의 저자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증거라고 이야기한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것이 아니다.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통곡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시대와 나라를 분리해서 소리치면 안 된다.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요, 고통으로 여겨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원칙대로 행해야 한다.

이 책은 일반 주석서나 주해서가 아니다. 위에서 짧게 언급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예레미야가 지금 살아있었다면 오늘날 상황을 보면서 외쳤을법한 메시지들을 다루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삶의 현장에서 왜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회복을 어떻게 기대해야 하는지를 성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읽기가 조금 거북스럽고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양약고어구(良藥苦於口)’라고 하지 않던가. 좋은 약이 입에 쓰지만 돌이키기 위한 우리의 내적인 도전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찬우 목사
(관악금천공동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나라, 교회, 가정, 개인이 외치는 회개는 공허한 메아리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증거”

는 BC 625년경 남왕국 유다의 말기 요시아 왕 때 활동했던 예언자다. 동시대를 살았던 이른바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부활과 다윗 왕조의 계승신앙을 근거로 유다 왕국의 부흥을 선언했다. 반면 예레미야는 유다 제국이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모든 전답은 황폐해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듣기 싫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고 호소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나라, 교회, 가정, 개인이 외치는 회개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질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예레미야가 자신과 이스라엘을 분리해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새벽에 들으면 더 좋은 찬양 1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바로 이 찬양이 나를 예배인도자로 결단하게 만들었다. 20대 초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드립션 교단에서 ‘찬양과 경배학교’ 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다. 나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라는 가사를 읊조리며 나도 고백하고 서원했다.

“평생 주님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당시 나는 세상의 노래를 더 좋아했었다. 그런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은 바로 그날 부른 이 찬양의 힘이다.

나는 지금도 새벽기도나 개인기도를 할 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곤 한다.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신실하지 못함과 상관없이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이 찬양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이다.

이 곡은 미국의 대표적인 예배인도자 밥

피츠의 곡이다. 그의 찬양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다. 많은 이들의 영혼을 울리는 찬양이 그러하듯 이 찬양도 고



난 중에 만들어졌다.

밥 피츠가 사역하던 교회를 나와 하와이 코나의 예수전도단에 들어갔을 때였다. 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와이에서의 사역이 너무 힘들었다. 어린 두 아이의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사역자로서 회

초청을 받아 찬양을 하러 갔다. 영적 침체에 빠진 그는 어떤 곡을 찬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어찌 할 바 몰라 하면서 기타를 잡은 그 순간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 그렇게 만들어진 찬양이 바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다. 1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이 찬양을 만들었다. 그날 집회에서 이 곡을 불렀고, 집회에 참석한 많은 이들도 밥 피츠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예배자들이 이 곡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 곡을 부를 때 만나는 하나님은 신실한 아버지이다. 나의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 전능하신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는 찬양이다. 개인적인 고난과 힘들음 이겨내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민족을 위해서 전심으로 부르짖는 예배자들에게서 흘러나와야 할 고백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우리는 변했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으심에 소망을 두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예배자와 교회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리게 될 줄 믿는다.



이상진 목사
(푸른누리공동체)

‘KNOCK 미니휴먼다큐’ 기독교문화부문 우수상

CGNTV, SNS 전용채널, 누적 조회수 711만뷰 돌파

CGNTV가 제작한 ‘KNOCK 미니휴먼다큐’가 한국기독교언론대상위원회(이사장 손봉호)가 수여하는 ‘제8회 한국기독교언론대상’ 기독교문화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KNOCK 미니휴먼다큐’는 소외된 이웃을 묵묵히 섬기며 예수님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을 조명했다. ‘읽은 양 찾기(조회수 200만)’와 ‘테이킷이지(조회수 120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는 전도사의 삶을 다뤘다. ‘인포리를 부탁해(조회수 80만)’는 30대 초반 총각 전도사가 작은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목회를 해나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태원 준섭이(조회수 260만)’는 이태원에 살고 있는 20대 초반 미국인 조셉(최준섭)의 이야기다. 준섭이가 거리에서 좋아하는 찬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해외에서도 많은 댓글로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웹드라마 ‘교회오빠의 연애QT’는 2016 KWBFEST에서 ‘베스트 브랜드



KNOCK 미니휴먼다큐, 테이킷이지, 인포리를 부탁해, 이태원 준섭이(시계방향).

시리즈’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근 선보인 미니시트콤 ‘두근두근 마카롱’은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재미와 잔잔한 감동까지 선사해 시청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KNOCK는 차세대들에게 기독교 문화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CGNTV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용채널이다. 2016년 1월 론칭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 조회수 711만뷰를 돌파했다.

“직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

일.하.세.아카데미 1기 59명 수료

제1기 일.하.세.(일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아카데미가 종강했다. 59명이 수료했다. 지난 10일 진행된 일.하.세.아카데미 수료식에서는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일터선교사로 파송했다.

일.하.세.아카데미는 지난 11월 26일부터 3주 동안 진행됐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일,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리스도인의 문화관(일터 문화), 그리스도인의 성공관(일터에서의 성공), 일터에서의 대인관계, 일터에

서의 신앙생활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졌다. 정운오 장로, 정진호 장로, 김명현 장로 등이 강의를 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간증, 연구 자료 등을 나누고 토의도 했다.

이지영 자매(J4U 공동체)는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하는지를 배웠다”고 했고, 조옥배 성도(안양평촌공동체)는 “일터에서 더욱 성실하게 일하는 크리스천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운오 장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일.하.세.아카데미 2기를 더욱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빙고 Basic QT 세미나 개강

화요일 오후 3시, 주일반 오전 9시

서빙고 Basic QT 세미나에서 수강생을 모집한다. 화요일반은 1월 3일부터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1호에서 진행된다. 주일반은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매주 주일 오전 9시 CGNTV 홍보관에서 진행된다. 큐티를 처음 접하거나 더 깊은 큐티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Basic QT 세미나는 큐티는 무엇입니까?, 큐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큐티 나눔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큐티 나눔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는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문의: 010-7748-1785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KIBI 송년의밤 26일 오후 7시, 서빙고

KIBI가 2016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12월 26일 오후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행사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는 이스라엘 전통 민요에 맞춰 춤추기, 오미히 권사의 시낭송, 2016년 사역보고, 2017 살롬이스라엘사역보고 등의 행사가, 2부에서는 뽕기, 느헤미야를 주제로 뮤지컬 ‘TO ISRAEL’이 막 오른다. 5시30분부터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식당에서 저녁식사와 친교의 시간이 있다.

95기 두란노어머니 학교 수강생 모집

95기 두란노어머니학교가 개강을 앞두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95기 두란노어머니학교는 1월 3일부터 12일까지 4주 동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행복한 아내, 따뜻한 엄마가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전화나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문의: 02-2182-9114

선천성 양측성 두안면열 어린이 무료 수술

이백권 집사와 만자라 자이의 인연

이백권 집사(강남C공동체)가 선천성 양측성 두안면열을 앓고 있던 아프리카 어린이를 무료로 치료해줬다.

이 집사는 지난 2일,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온 만자라 자이(여, 9세)의 수술을 집도했다. 수술은 잘 마쳤고 회복 중에 있다. 자가지방이식술을 시행한 다음 이번 달 30일 경 세네갈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백권 집사와 만자라 자이의 인연은 지난 8월부터 시작되었다. 아프리카 세네갈로 의료선교를 간 이백권 집사가 현지에서 만자라 자이

의 수술을 하려고 했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하지 못했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집사에게 지난 9월 세네갈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가 연락을 했다. 직접 한국을 방문하면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이었다. 이 집사는 무료수술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한국으로 초청했다.

이백권 집사는 “만자라 자이를 위해 기도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세례식

어르신 6명 세례 받고 하나님 자녀로!

지난 14일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기관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온누리복지재단산하기관)에서 올해 들어 17번째 세례식이 거행됐다.

세례식은 이기훈 목사의 집례로 진행됐다. 이날 6명의 어르신(김흥은, 서명교, 나정균, 정금순, 박장산, 반정순)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진행되는 세례식은 헌신적인 봉사자들을 통해 맺어진 열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누리교회와 지역교회 예배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섬김을 보고 어르신들이 닫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 김현준 기자

2000선교, 중국선교 심포지엄 개최

“온누리교회와 중국교회가 함께 선교해야”

지난 10일 2000선교가 주최하는 ‘중국선교 심포지엄’이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중국 선교사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진에스라 목사의 ‘선교중국 2030’, 김홍주 목사의 ‘온누리 중국선교 방향’, 강일영 목사의 ‘중국선교 현황’, 허복만 장로의 ‘비타민C’, 럽문홍 목사의 ‘중국 유학생과 이주

민, 역파송 선교’, 한다니엘 선교사의 ‘교회를 통한 중국선교의 가능성’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는 “온누리교회가 중국교회와 함께하는 선교를 해야 한다”면서 “이끄는 선교가 아니라 그들에게 사역하는 지혜를 배우고, 나누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 김현준 기자

12월 양재 세례자

■양재

권보람 870611
김우철 740930
김정수 590606
김준호 860208
이명숙 601126
최태진 010623
한선희 830110
하지영 800403

유아

김시연 150921
김대성 김현희
김예나 150725
김재욱 홍산혜
김유정 160516
김동한 권지영
김윤서 141126
김동한 권지영

박세라 160409
박동석 백지영
양유진 160225
양진욱 류지혜
임하진 141108
임남섭 민보라
장연서 160118
장철준 이진숙
장유하 160214

장석호 김경은
조하주 150610
조민 나은영
조혜은 150325
조영래 정은희
한유진 141225
한종훈 김민경

장로칼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김만순 장로
(이촌공동체)

“전도본부에서 연말에 안산M센터를 후원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팔인을 위한 맞춤전도집회가 어떨지요?”

노규석 목사님의 질문에 불쑥 튀어 나온 아이디어다. 안산M센터 네팔예배가 시작된 지 5년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형제들이 일자리를 찾아 전국으로 흩어졌다. 안산M센터에 남아서 예배드리는데 형제 상당수가 2017년 상반기에 비자가 만기되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들을 역파송 선교사로 떠나보내는 것도 좋지만 리더십이 부족하면 예배를 섬기는데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네팔예배 부흥이 필요한 시점에 네팔인을 위한 맞춤전도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동역자들과 피급식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부으심과 임재를 구했다.

“하나님 비가 오거나 추우면 움츠리기 싫어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날씨를 주관하시고, 회사의 전업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 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요 21:1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 집회를 준비했다. 집회 당일, 안산M센터 온누리홀에 18개의 테이블이 놓였다. 한 테이블에 10명이 앉을 수 있으니 최대 18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멋지게 테이블을 세팅하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너무 일을 크게 벌인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사실 안산M센터에서 큰 규모의 전도집회가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다. 불과 7개월 전만해도 엄두도 못 낼 일 아니었던가. 처음에는 늘 하던 대로 수수하게 전도집회를 치르면 된다고 생각했다. 네팔에서 온 지체들이 가장 좋아하는 염소고기가 들어간 카레(goat curry, 일명 ‘카시꼬 마수’)를 준비하고 친구들을 잔치에 초대할 생각이었다. 이정도면 충분하고 훌륭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원대했다. 두 달여 남짓 집회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여러 공동체와 연합을 통해서 훨씬 더 격조 있고, 풍성한 전도집회를 준비하게 하셨다. 전도본부의 열정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역동적인 전도집회를 준비시키셨다.

집회 당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무리 지어 왔다. 네팔 형제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무려 152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할렐루야. 세 공동체(영등포구로, 이촌, 몽골)가 준비한 특선이 무척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멀리 네팔에서 모셔 온 필립수베디 목사님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다. 카스트제도의 브리만, 힌두교 제사장으로 살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됐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토해냈다. 집회에 참석한 네팔 형제들 대부분이 복음을 전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카스트 제도에서 높은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카스트제도와 가족들의 반대가 그들이 예수를 믿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그런 배경을 가진 형제들에게 필립수베디 목사님의 설교는 안성맞춤이었다. 결산카드를 집계한 결과 55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58명이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다. 28명은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 이번 네팔맞춤전도집회를 계기로 이주민들을 위한 더 많은 맞춤전도집회가 개최되었으면 좋겠다. 늘 영혼을 추수하는 안산M센터를 꿈꾼다.

권사칼럼

연주자 VS 예배자



임은미 권사
(천양공동체)

타고난 소질이 나 순수한 열정에서 비롯되지 않은 예술은 늘 역기능을 낳는다. 그만큼 깊은 곳에 도사린 사단의 보암직한 빛이 있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

하면 영웅심에 도취되어 교만하기 쉽다. 이것이 바로 음악인들이 넘어지기 쉬운 무대이다. 갈채를 위해 훈련된 연주자와 찬양으로 엮드려진 예배자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

나는 불안하고 긴장된 가정환경 속에서 착한 아이로 자랐다. 그런 나에게 피아노는 가족해체를 막고 살아남기 위한 도구요, 비상구였다. 왜곡과 억압이 심한 낮은 자존감 때문인지 나에게 음악은 즐거거나 누리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나를 증명하기에 급급했다. 조금하고 엄격한 학대행위에 가까웠다. 음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음을 다해 올라가서 쟁취하고 넘어야 할 태산으로 여겼다. 결국 나는 이른 나이에 영육의 탈진에 이르렀다. 삶의 방향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다. 20대 초반에 ‘영혼의 깊은 밤’이 찾아왔다. 기도도 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나눌 줄도 몰랐다. 바로 그때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머리에 피를 흘리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고 하셨다. 그동안 나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고, 감정을 억압한 채 과시적인 자기 이미지에 시달렸었다. 병인 줄도 모르고 극심한 두통을 늘 달고 살았던 나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병상에 있게 하시면서 나의 목적 없는

질주를 멈추게 하셨다. 내 안의 빛나간 가치관과 체계도 바뀌주셨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땅위를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 하늘을 향해 손짓하는 나뭇잎, 축사 뒤에 함조롭게 피어난 도라지꽃, 이른 아침 숲을 깨우는 온갖 새 울음 등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보게 되었다.

또 다른 변화는 이웃의 따뜻한 얼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폐지 줍는 할아버지의 아침인사, 야채가게 부부의 쫄쫄 언 손과 발, 환경미화원 아저씨의 성실한 방문이 그것이다. 그렇게 조금씩 진정으로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내가 피아노를 쳤던 사람인지 정체성이 헛갈리는 노년에 들어섰다. 그럼에도 가끔 찬양반주를 해야 하는 기회가 찾아온다. 이미 손은 굳어져서 틀어지고 눈도 가물거려 악보가 희미하게 보인다. 그렇지만 내 마음은 연인과 밀회를 하듯 찬양 안에서 주님을 먼저 만난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악보 앞에 앉아 하염없이 주님을 보고 만지고 먹는다. 내 속에 흥한 것들이 너무 많아 주님이 내안에 들어오실 수 없을 때는 회개의 영을 간구하며 밤이 새도록 주님을 기다린다.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주님과 긴 데이트를 하고나면 내 안에서 주님이 노래하시는 자유로움을 경험한다. 사람의 인정을 구걸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자녀 됨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를 드리는 것이다. 그때 나의 오감이 열리고 주의 임재를 흠뻑 누리며 단잠을 자게 된다.

나는 이제 완벽을 추구했던 옛 자아에 눌러 있지 않다. 행복한 예배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확신한다.

신앙에세이



최용준 목사
(여의도공동체)

52기 내적치유학 교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감동을 느꼈다. 2박3일 동안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했다. 무엇보다 이번 내적치유학교에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를 경험했다.

첫째,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세상과의 단절의 시간이 필요하다. 처음 내적치유학교에 오신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있다. 핸드폰 없이 2박3일을 보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고독한 군중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연결됨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록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더 편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다는 고백을 듣는다. ‘길이 끝나는 곳에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글귀처럼 단절은 소외의 시간이 아니라 리셋의 시간이다. 컴퓨터 속도가 늦어질 때 전원을 리셋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가끔 리셋이 필요하다.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적극적인 단절을 통해 새로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다.

둘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 ‘자기 고백’의 용기가 필요하다. 자기 고백은 솔직한 내 모습을 꺼내는 것이다. 즉, 자신의 아픔과 약점까지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지극히 두려운 행동이다. 상대방에게 나에 대한 편견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약점과 상처에 대한 자기 고백은 자신에게도 수치감을 준다. 그렇기에 자기 고백은 영적인 용기가 있는 자의 고백이다. 정직하게 자신을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답해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연약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부끄럽더라도 나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가족 웃을 임혀주실 것이다(창 3:21). 부모의 편중증적 양육으로 힘든 유아기를 보냈던 어른들의 말이 생각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이었는지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야 하나님께 내 감정을 내려놓는 법을 알았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신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소그룹 나눔이다. 레리 크랩은 영적인 공동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영적 공동체의 모든 것은 세상의 질서와 정반대로 움직인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 다른 사람들을 움직인다. 우리를 소망 가운데 하나로 묶는 것은 가두 행진을 벌일 만한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공공연한 실패다.”

그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나누었을 뿐인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내 아픔이 결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다시 한 번 기대한다. 문득 어느 에세이의 한 글귀가 떠오른다.

“진솔하고 진중한 행동은 언제나 가장 느려 보이지만 가장 빠르게 본질에 육박한다는 사실도 이제야 조금씩 실감하고 있다. 그리고 나 자신 자신의 전생애를 짚어지고 이동하는 달팽이여, 너의 삶의 방식이 이제는 내게 경이롭기까지 하다.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전생애를 이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느린 속도로 가장 진중하게 이동하는 너의 심경을 알 듯도 하다.”

내면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달팽이처럼 진중하게 기다리며 새해를 맞이하고 싶다.

달팽이처럼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우리를 위해 태어난 아기

세상의 가장 훌륭한 상담자를 만난다고 해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의논하고 상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가장 지혜롭고 경이로운 상담을 해주십니다.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아름다운 마음과 가장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주시는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삶의 길을 안내받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되는 전통적인 이름입니다. 이샤야는 구약에 누운 아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선언을 했습니다. 그분은 경이로운 지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힘을 가진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도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인 분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구세주는 하나님이라는 예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

그분의 세 번째 이름은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이 아이는 신비롭습니다. 아들인 동시에 아버지입니다. 영원하신 분이자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라는 표현은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준 통로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낳을 뿐만 아니라 돌보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돌아가시지만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시간이 제약을 받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영원과 시간은 다른 차원입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영원의 시점은 모두 현재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영원하신 분, 시간에 속하지 않은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네 번째 이름은 ‘평화의 왕’입니다. 세상은 힘과 무기와 법으로 평화를 지킵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힘으로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공평과 정의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평화의 나라는 끝없이 펼쳐질 것이며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7절).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는 압제와 권력과 힘으로 다스리는 앗시리아 제국과 대조됩니다. 이스라엘이 앗시리아의 침공을 받고 고통과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앗시리아 제국이 최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무력으로 통치하는 제국들은 반드시 쇠퇴합니다. 반드시 사라집니다. 네루라는 역사가는 “세계 역사는 제국들의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의지하는 제국은 반드시 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빛을 잃어갔습니다. 영광스럽게 시작했더라도 모욕과 수치로 사라졌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이 지금도 제패하고 있습니까. 한 시대를 호령했지만 모두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물리적인 힘을 의지하는 제국들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는 강대국들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 그 힘이 계속 될 리 없습니다. 세상의 제국들과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 견고해집니다. 끝없이 펼쳐지고 점점 커집니다.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쇠퇴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쇠퇴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쇠퇴하는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쇠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제국과 같이 물리적인 힘을 의지하는 교회는 쇠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쇠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절대 쇠퇴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며,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는 그분의 주권을 의지하면 견고할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핍박 속에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힘과 권력에 핍박받고, 모욕 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좋아하는 지역에서는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제국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제국으로부터는 핍박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의지하는 교회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요, 회복의 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가 바로 기묘자 모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며, 평화의 왕이시며,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는 견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하고 영원한 나라의 일원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쇠퇴하는 제국의 일원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앗시리아 같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면서 쇠퇴하는 인생, 소멸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까. 그것을 결단하십시오. 이번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교

부모의 역할 ‘수용, 경청, 공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높은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학업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어야 한다.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에 대한 고민은 초등학교 시절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때 부모들은 자녀들의 고민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수용해 주면서 공감해줘야 한다.

“뭘 벌써부터 고민이야. 그럴 시간 있으면 공부나 해!”

“공부도 못하는 애들이 무슨 고민을 해.” 부모의 이러한 반응은 자녀의 자존감을 저하시킨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두 번 다시는 고민을 말하고 싶지 않게 만든다. 공동체에서 신앙 좋기로 소문난 크리스천 부모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녀를 많이 사랑하는 만큼 높은 기대를 하는 탓일까? 자녀의 작은 잘못이나 실수 혹은 불평을 참지 못하고, 인성을 높이면

서 언어적, 정서적 폭력을 가한다. 부모가 ‘불평은 공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위협하는 상’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녀 스스로 고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빼앗지 말아야 한다. 자녀가 결정해야 할 일을 부모가 대신 결정해서는 안 된다. 부모에게 결정의 기회를 빼앗긴 아이들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무력감에 빠진다.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 받는다. 결국에는 부모의 기대에 압도당해서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내가 인생을 살아봐서 잘 알아. 무조건 시키는 대로 따라와!”

이와 같은 부모의 잘못된 생각이 자녀에게 독이 된다. 무조건 옳다는 비합리적인 사고가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아니다. 자신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아무 조건 없이 사

랑해주는 부모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부모가 “괜찮아. 잘했어”라고 격려해줄 때 자녀들의 좌절감과 불안감이 줄어든다. 자녀들은 부모의 격려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다. 부모는 자녀가 다시 도전할 때까지 지켜보고 격려하면 된다.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변화패턴 연구에 따르면 학업성취도는 초기에는 자존감과 부모-자녀관계가 모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 고등학교 이후에는 당사자의 자존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중학생 때의 학업성취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과연 나는 자녀의 적성, 흥미, 성격,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아이를 둘러싼 환경, 객관적인 학습 능력, 갈등이나 스트레스, 친구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을까? 자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녀를 알아가는 대신 부모가 살아온 인생을 지표 삼아 자녀를 휘두르고 있지는 않은

지 고민해 봐야 한다.

또한 청소년기는 또래 그룹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친구를 잘 사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생각을 말로 잘 표현하고, 또래 친구들의 생각을 잘 듣고 이해할 줄 아는 사회적 의사소통능력을 익히면 막연한 불안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갈등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대안을 찾는 연습을 통해서 대처능력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이번 겨울 방학에 서빙고 상담실에서 준비한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도록 도와 줄 것이다. 디딤돌이 될 것이다. 문의: 02-793-2998



박미옥 상담사
(서빙고 상담실)

14 온누리신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 손정훈 목사

시간: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 김국중 팀장(010-8885-6757)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하태일 팀장(010-3798-3148)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 예뵐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땅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과워워이프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예배 14:00 분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땅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공자정 집사(010-5101-461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툼은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서빙고 목요어머니 기도회

시간: 목요일 10시 30분 / 누리홀

문의 : 안민경 간사(02-3215-3523)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세라 선교사(010-4029-7601)

목요선교집회 싱어 모임

연습 및 예배: 목요일 오후 5:30~9:30

(저녁식사시간 포함)

문의: 010-2701-5309

금요회복예배 싱어 모임

자격: 온누리교인

연습 및 예배: 금요일 오후 6:00~8:45

(저녁식사 포함)

문의: 이문정 총무(010-9767-3319)

국악찬양팀 팀원 모집

분야: 사물놀이 등 타악으로 주님을 찬양

하기원하시는 분

모임: 매주 목 오후 7시~9시 반(서빙고)

문의: 010-6281-9121

경배와찬양 성탄절 큰잔치

일시: 12월 25일 오후 4시

장소: 서울 시청 앞 광장 및 대학교

문의: 02-796-9700

KIBI(한이성경연구소) 간사 채용

업무: 선교단체 행정 및 기획, 총무 인사

제반업무

해외 문화행사 기획 및 행정 지원 업무

기도모임 준비 및 세미나 행정 지원

문의: 신나영 실장(010-2772-5058)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 해외 사역자 모집

분야: 세네갈 농업 사업 현지 행정 담당자

자격: 선교에 비전이 있고,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파견: 세네갈 현지 근무, 1년 이상

우대: 불어(또는 영어)가능자, 관련 경험자

모집: 12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서류접수

제출: www.abetterworld.or.kr 참조

문의: smjang@abetterworld.or.kr

*계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을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어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을(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청년부예배: 사랑을(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39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목상의집

*서툼은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킨도너츠)

-북정역 2번출구 9:20 출발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양재 목요어머니기도회

목요일 10시 30분 / JDS홀

문의: 이현주 간사(02-570-7553)

도곡 어머니기도회

목요일 10시 30분 / 충성홀

문의: 이현주 간사(02-570-7553)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한 기도 모

임 살롱기도회

일시: 매주 월

다 큐 영 화

서서평

徐舒平

천천히 평온하게

선교사란 이름보다 간호사란 이름보다
 나환자들의 어머니, 버려진 소녀들의 어머니가
 더 잘 어울리는 푸른 눈의 선한 이웃, 서서평 선교사

내레이션 : 배우 하정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삶의 거친 풍랑에도
 섬김의 삶으로 사랑을 보여준
 서서평 선교사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12월 24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상영안내

서빙고 일사: 12월 24일(토)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5시 / 장소: 서빙고 본당
 양재 일사: 12월 24일(토)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5시 / 장소: 서빙고 본당
 부천 일사: 12월 24일(토) 오전 10시 / 장소: 본당
 수원 일사: 12월 24일(토) 오전 10시 / 장소: 본당
 양지 일사: 12월 24일(토) 오전 10시 / 장소: 본당
 평택 일사: 12월 25일(주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본당
 남양주 일사: 12월 24일(토) 오전 10시 / 장소: 본당
 대전 일사: 12월 24일(토) 오전 10시 / 장소: 본당
 강동 일사: 12월 24일(토) 오전 10시 30분 / 장소: 두란노홀
 인천 일사: 12월 24일(토) 오전 10시 / 장소: 프리스페이스 6층

제작 CGNTV

2017년 봄 영화관 상영 예정